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⑯ '지옥에서 온 판사'(2024)

진정한 참회만이 용서 이끌어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쪽 손을 어느 쪽 무릎에 대고 있을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동상 자세가 오른손 손등으로 턱을 괴고 그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붙이고 있어서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특이한 자세의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로댕은 그 유명한 단테의 시 '신곡'의 '지옥편'을 형상화해 '지옥의 문'이라는 청동 작품을 만들었다. 6m가 넘는 이 거대한 작품에는 180명이 넘는 다양한 인물들이 표현돼 있는데, 지옥문 위에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단테가 묘사한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단테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로댕의 '지옥의 문'과 무척 닮은 문을 우리는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만날 수 있다.

유스티티아(배우 오나라)는 살인을 저지른 인간의 영혼을 심판해 지옥(게헨나)으로 보내는 악마 판관이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 지옥의 재판정에 가야 할 판사 강빛나(배우 박신혜)가 살인 지옥의 재판정으로 잘못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강빛나를 살인 지옥으로 보내 버린 유스티티아는 지옥의 총책임자 바엘(배우 신성록)에게 인간 세상에 올라가 살인을 저지르고 용서받지도 못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죄인 10명을 1년 안에 지옥으로 보내라는 처분을 받는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그렇게 강빛나의 몸에 깃들어 사는 악마 유스티티아가 악질적인 살인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이야기이다.

유스티티아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의 이마에 '게헨나'라는 낙인을 찍어 지옥으로 보내려고 할 때 로댕의 작품을 꼭 빼닮은 지옥의 문이 열린다. 여기에 악마들과 사탄이 등장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등 드라마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기독교적이다. 그런데 또 살인 지옥이나 거짓 지옥 등 여러 가지 지옥 세계가 있고, 또 그런 지옥을 담당하는 판관이 있다는 설정은 은근히 불교적이다.

사실 불교만큼 지옥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종교도 없다. 잠시도 쉴 틈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무간지옥'이라고 번역하는 아비지옥을 시작으로 뜨거운 지옥이 여덟(팔열지옥)인데 그 각각의 지옥에 딸린 지옥이 수십 개씩이다. 또 뜨거운 지옥만큼은 덜 알려져 있지만 추운 지옥이 또 여덟(팔한지옥)이다. 그렇게 해서 대략 불교에서 설명하는 지옥이 140개가 넘는다. 그만큼 우리 중생이 저지르는 죄가 많다는 뜻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중생의 삶이 다양하고 또 다양한 만큼 세세한 교화가 필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기독교적 세계관에 불교 소재 가미
정의는 피해자 용서로 완성 메시지
불교적 판결은 처벌 아닌 구제 중심

불교의 지옥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시왕(十王)이다. 사람이 죽은 뒤 7일마다 염라대왕을 필두로 열 명의 저승 재판관에게 차례로 심판을 받는데, 각 시왕은 살아생전의 업보를 심판하고 그에 따라 환생과 처벌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각 시왕은 특정 지옥의 형벌과도 연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지옥에서 온 판사'는 기독교의 겉모습을 하고 있는 불교 교화 드라마인가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 같은 아이러니한 성격을 보여 준다.

드라마에서도 설명하지만 유스티티아는 '정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그 정의의 여신이 바로 유스티티아이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오직 죄의 무게로만 판결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 속의 유스티티아는 모든 죄인의 변명이나 사연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일말의 선처도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다. 그런 유스티티아가 한다온(배우 김시우)을 만나 눈물을 배우면서 악마의 판사가 아니라 인간의 판사로 변한다.

이 드라마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시 '정의'이다. 드라마는 가장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 그게 정의"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피해자의 용서로 완성된다. 강빛나는 정태규(배우 이규한)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로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할 뿐이다. 법이 결코 자신들을 버린 적이 없음을 확인받고 싶을 뿐이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으로 양형을 하고자 한다. 피해자와 피해 유가족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법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강조하듯 피해자의 용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달려 있다. 사과와 반성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참회일 테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제를 불교식으로 바꾸면 진정한 참회만이 제대로 된 판결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불교적인 판결은 처벌 중심이라기보다는 구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데바닷타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오역죄를 저지른 일천제마저도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이다. 심지어 목련존자는 지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구제하기도 하고, 지옥고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지옥을 전담하는 지장보살까지 있다.

일상에서 늘 독송하는 〈천수경〉의 참회게를 통해 우리는 참회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다.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을 따라 생길 뿐이니/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역시 사라진다./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없어져 모두 공해지면/ 이것을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죄라는 것의 실체가 없고 마음의 문제라고 하니 죄와 참회라는 것이 그저 마음만 바꿔 먹으면 해결되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엄중한 경책이 담겨 있다. 행동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한 마음까지도 문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는 결과만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이미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참회 역시 입으로 사과하고 행동으로 사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문제가 된다.

진정한 용서는 처절한 참회를 바탕으로 한다. 참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부처님의 교화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은 앙굴리말라처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회를 한다면 그 죄업이 한순간 녹아서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계율을 어긴 비구라도 수호·공경해야 할 것 설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⑪ 십종의 수승공덕(十種殊勝功德)

십종의 수승공덕(十種殊勝功德)은 실제로는 여덟 가지가 열거돼 있으며,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은 육바라밀입니다. 이 부분은 계율을 깨트린 비구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는 유정들이 열 가지 훌륭한 생각을 내며 그로 인해 크나큰 공덕 보배의 이익을 얻는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가 비록 계율을 깨트렸다 하더라도, 그 형상을 보는 저 유정들은 부처를 생각하며 간절하게 존중하고 믿으며 공경하는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끝내 외도 스승의 글 내지 주장이나 그 제자들에게 귀의하지 않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혹은 그를 보는 유정들은 거룩한 계율과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질, 음주 방탕과 두려움을 떠나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 그를 보는 유정들은 보시를 생각하며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큰 재산과 지위를 얻어 바른 선정에 들고, 바른 행을 하는 이를 친근하며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는 그를 보는 유정들은 인욕을 생각해 부드럽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로써 추악한 말, 잡되고 더러운 말과 성냄을 버리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는 그를 보는 유정들은 출가를 생각해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는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로써 속세 법을 버리고 출가 정진하며 훌륭한 행을 닦아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 그를 보는 유정은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정려·등지(等持) 등 훌륭한 생각을 냄으로써 산림과 수행하는 곳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선정을 닦으며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한 그를 보는 유정은 지혜를 생각하는 뛰어난 사유(思惟)를 내어, 이로 말미암아 그는 법문 듣기를 즐기고 바른 법을 읽고 외우며,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혹은 그를 보는 유정들은 전생에 출가하여 심은 선근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유를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문하며 그 발에 예배하나니, 이 인연으로 장차 존귀하고 세력이 있는 집에 태어나고, 무량한 유정들이 우러러보게 되며,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야, 내 법안에서 출가한 사람이 비록 계율을 깨트렸다 해도, 그 형상을 보는 유정들은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어 무량한 공덕의 보배 무더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왕이나 대신, 재상 등이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일은 옳지 못하느니라. … 이 같은 비구가 비록 법기는 아니더라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행동하는 그 위의는 모든 성현과 같으며, 그를 봄으로써 무량한 유정들의 갖가지 선근이 다 성장하게 되며, 선(善)으로 나아가 하늘에 나게 하고 열반의 바른 길을 열어 보이느니라. …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 이 같은 비구를 나의 법인 율장(律藏)에서는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느니라. 비유하면, 소와 사향노루는 신명을 마친 뒤에는 우황과 사향이 각각 있어서, 무량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계율을 깨트린 비구에게도 그와 같이 계덕의 힘이 있어, 무량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이 있느니라. … 계율을 깨트린 비구도 그와 같아 나의 법인 율장에서는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어 무량한 유정들이 잠깐만 모아도 청정한 지혜의 법안을 얻게 한다. 하물며 남을 위해 바른 법을 널리 설함이겠느냐. … 그러므로 대범천아, 이렇게 계율을 깨트리고 나쁜 행을 하는 비구일지라도, 모든 속인들은 다 그를 수호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것이다. 나는 끝내 재가자가 곤장으로 그를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게송으로 외우셨다.

"첨박가 꽃이 비록 시들었어도 다른 여러 꽃보다는 나은 것처럼, 계율을 깨고 악을 행하는 비구일지라도 외도의 무리들보다는 나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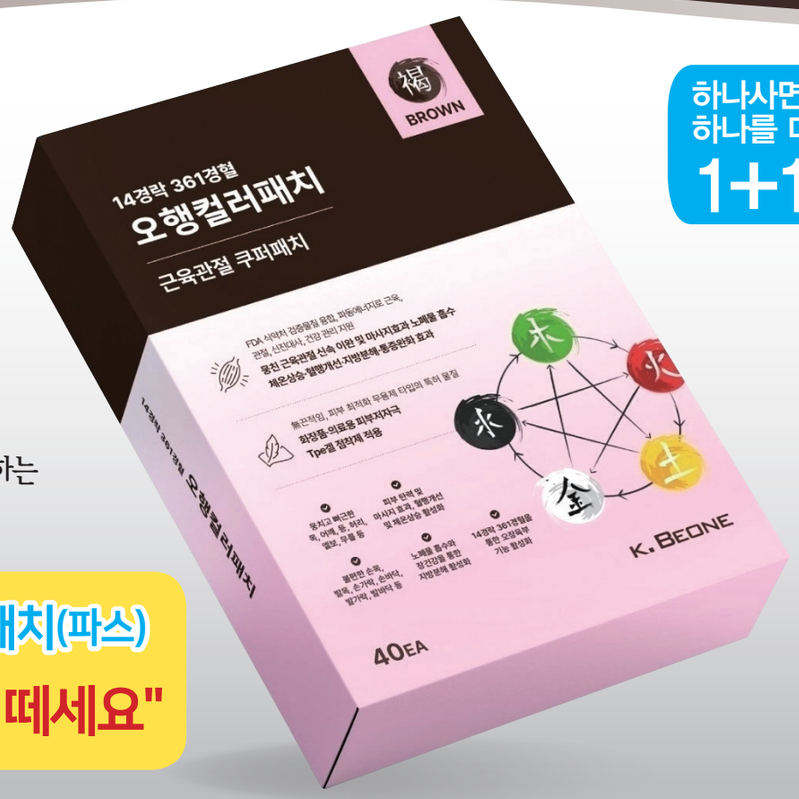
이처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계율을 깨트리고 악행을 저지른 비구라도 외도들보다는 나으니, 그 비구가 지니고 있는 계덕의 힘이 남아 있기에 그를 수호 공경해야 함을 두둔하시며, 더욱이 그를 해치지 않아야 함을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